

고전 랍비 문헌(Classical Rabbinic Literature): 미쉬나(Mishnah) 연구

최창모(崔昌模)

전통적으로 서양고전학(西洋古典學, Classics)에서 히브리-유대학(Hebrew-Jewish Studies)은 헬레니즘(Ancient Greek & Hellenism)이나 라틴연구(Latin Studies)와 더불어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히브리-유대학>의 토대는 미천하다. 1991년 건국대학교에 아시아 유일의 히브리학과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구조조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중동-이슬람 분야(Middle Eastern & Islamic Studies)의 우산 속에서 소수만이 학술활동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중에서 출판, 판매되고 있는 관련 주제의 도서들조차 원전(原典)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대중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전학으로서의 히브리-유대학의 범주는 히브리 성서(Hebrew Bible)를 비롯하여 고전 랍비 문헌(Classical Rabbinic Literature, ספרות רבנית)을 포함한다. 히브리 성서가 대략 기원전 10세기부터 3세기까지 생산된 텍스트라면 랍비문학은 기원 3세기부터 생산된 미쉬나(Mishnah)와 탈무드(Talmud)를 주로 지칭한다. 특히, 탈무드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미쉬나(Mishnah, מִשְׁנָה)는 기원 3세기 초 랍비 유다 하-나시(Rabbi Judah ha-Nasi, '랍비')가 편집하여 집대성한 유대 랍비전통의 문헌을 일컫는다. 미쉬나는 기본적으로 성문 토라(모세법)의 계율을 추가(supplements)하고 보충(complements)하여 보다 명료하게 체계화한 구전 토라(Oral Torah)이자 탈무드의 모체(母體)다.

미쉬나는 모두 6권(sedarim)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제라임은 농업관련 법령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십일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제2권 모에드는 각종 유대교의 종교 절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안식일의 노동 금지 조항이 담겨있다. 제3권 나습에는 주로 가족법을 다루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등이 언급된다. 제4권 네지킨은 주로 형법과 민법에 해당하는 사항들로 재판 진행 방법 등이 논의된다. 제5권 코다شم은 '성스러움'을 취급하는데 성전 제사와 제물, 그리고 까다로운 음식법이 담겨있다. 제6권 토호롯은 정결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결함과 부정함, 각종 질병과 여성의 월경, 더러움을 씻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언급된다.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신약약 중간사(제2차 성전시대사), 유대 묵시문학, 유대-기독교 비교 연구를 했다. 건국대학교 문과 대학 히브리학과를 거쳐 상허교양대학 교수, 중동연구소 소장, 한국중동학회장,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했다. 최근 출판된 『유다』를 포함하여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여자를 안다는 것』 『나의 미카엘』까지 아모스 오즈의 주요 소설 네 작품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옛 지도로 세계 읽기』 『중동의 미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금기의 수수께끼』 『기억과 편견』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일시: 2021년 04월 20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